



2월 18일



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어요.

하늘에는 새들이 날고 구름도 두둥실 떠 다녀요.

구름이 무거워지면 비가 되고 눈이 되어 땅으로 내려요.



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얼마나 넓고 높은지
알 수 있어요. 끝이 보이지가 않지요.
하나님께서서는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예요.

생각하는 아이

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세요!

밖에 나오니 맑은 하늘에 두둥실 구름이 떠 있었어요.
"선생님 저 하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요?
저 나무와 꽃들도요!"



"그래, 맞아~

하나님께서는 나무와 꽃들을
만드시고 어떻게 자라게
하실까?"

"하나님께서 자라게
하신다구요?"

"응~. 선생님이 이 씨앗을 줄께.
남우가 이 씨앗을 심어서 자라는
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
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
주고 계시는지 알게 될 거야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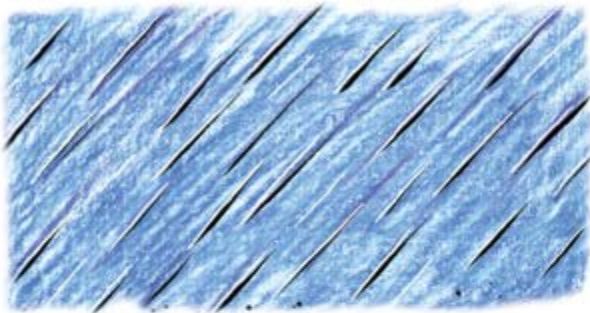


즐거움 활동

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.
그림을 보고 빠진 글자를 써 넣어요.



무 개



소 기

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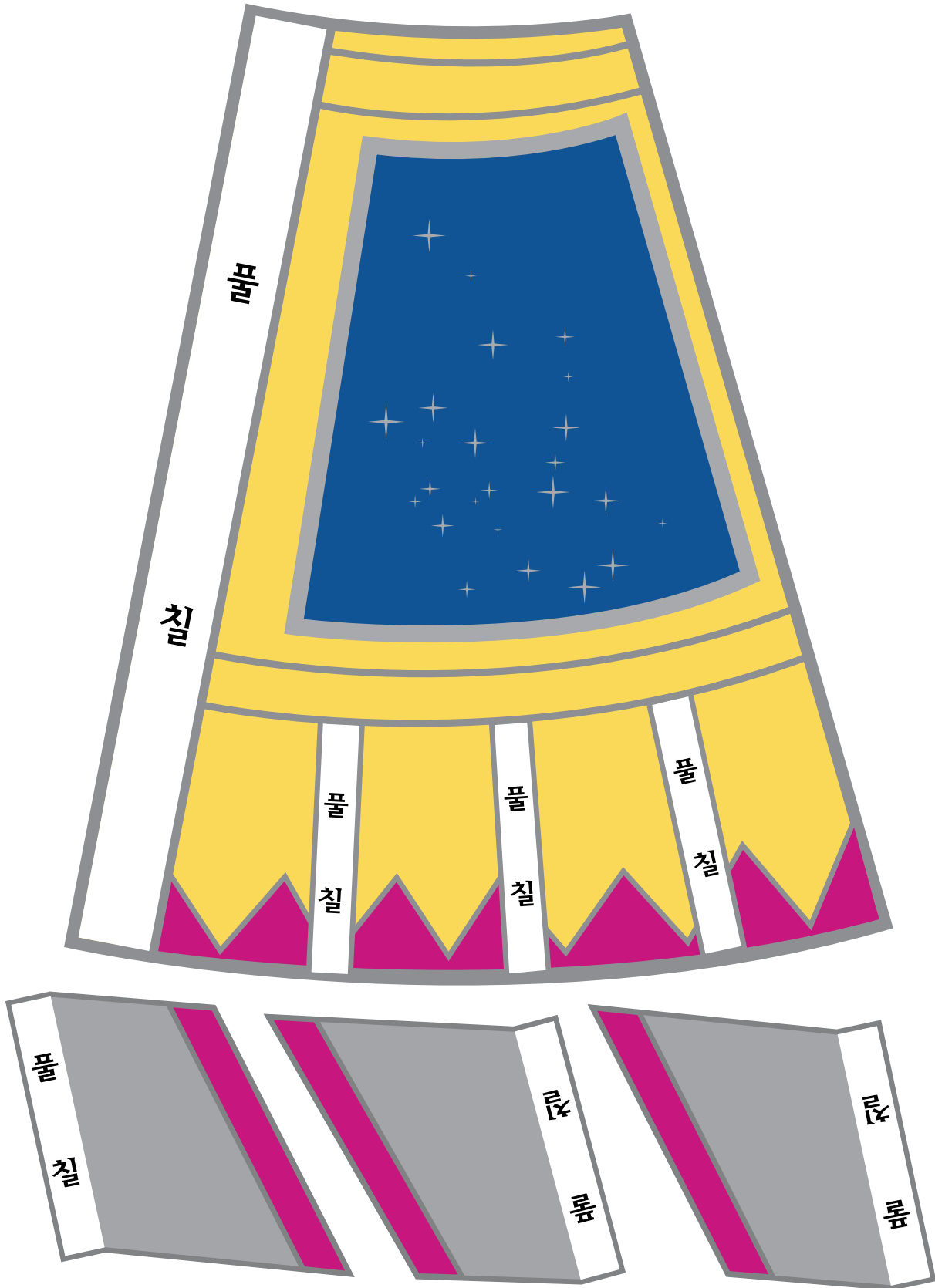


개



"로켓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가 볼까요?"

*만드는 방법은 뒷면에 있습니다.



만드는 방법

- ① 로켓을 오려서 몸통을 동그랗게 말아 붙이세요.
- ② 날개를 풀칠해 로켓에 붙입니다.
- ③ 완성된 로켓을 힘껏 날리세요.
- ④ 친구들과 함께 해요!



마음속 암송

따라 쓰기

여호와와 말씀으로
 하늘이 지음이
 되었으며
 시편 33장 6절

다시 쓰기

--	--	--	--	--	--	--	--

--	--	--	--	--	--

--	--	--	--

--	--	--	--	--	--	--

선생님께

부모님께